

조경식물 선정의 전문성 고찰

정우진* · 김형석* · 엄미란*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 서론

조경업(설계, 시공, 관리, 소재생산, 교육)이 인접분야인 건축토목, 도시계획 등과의 차별성을 찾는다면 생물[식물]소재를 이용한다는 데 있다. 조경식재가 조경업의 가장 핵심 분야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심우경, 2009: 56). 살아 있는 소재로서의 식물은 자연과의 교감을 위한 하부구조로서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독특하고 다양한 경관적 특성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업의 발전과 확장은 식재설계에 관한 제환경의 궤적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작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점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식재설계에 있어 조경소재들이 점차 단순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농가에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소재들을 생산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설계 수준의 단순화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조경 소재에 대한 학습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주 이용되는 30~40종의 수종을 친편일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설계 관행도 문제겠지만 그보다도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책정한 조경수목 가격표의 소재가 몇 십 년째 품종구분이 없이 고시되다 보니 이를 참조하는 설계회사에서는 품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계하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재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내외에서 조경소재로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품종들이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몇 가지 정해진 식물만을 가지고 비슷한 도시경관을 재생산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식재설계의 단순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수목 가격표에 문제가 있음을 다각적인 자료로서 비교 고찰해 보고, 나아가 이들 가격표에 품종에 따른 가격이 고시되어 식재설계뿐만 아니라 조경업 전반의 발전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동안 식재설계에 참고되어 왔던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수목 가격표의 품종구분에 따른 가격제시가

표 1. 분석 자료

구분	분석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사)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조경도서	A 『조경수목학』(1988)
	B 『최신 조경식물학』(2007)
	C 『한국의 조경수목』(2009)
국내 원예종묘사	A 가산원예조경 2012년 카탈로그
	B 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 2012년 카탈로그
	C 대림원예종묘 2012년 카탈로그
	D 서림원예종묘 2012년 카탈로그
	E 한솔원예종묘 2012년 카탈로그
해외 원예종묘사	A 일본 원예종묘회사, 花ひろば本店 (http://www.hanahiroba.com)
	B 일본 원예종묘회사, 國華園 (http://www.kokkaen-ec.jp)
	C 미국 원예종묘회사, TyTy Nursery (http://www.tytyga.com)

부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헌조사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조경소재로서 활용 가치·잠재력이 높거나 업계에서 설계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유실수 10종, 화목류 13종, 초본류 15종¹⁾을 선정하여 조경도서, 국내 원예종묘사 카탈로그, 해외 원예종묘사 카탈로그에 수록된 소재의 품종 개수를 비교 고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경도서는 대학교재나 도감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서적 3권을 선정하였으며, 국내 원예종묘사의 경우는 2012년 카탈로그를 발행한 업체 중에서 비교적 많은 수종을 판매하는 5개사를 선정하였다. 해외 원예종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수종을 자세히 게시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일본의 2사, 미국 1사를 선정하였다(표 1 참조).

III. 결과 및 고찰

1. 유실수의 품종 구분

현재 도시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에 놓여 있다. 한국도 발빠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농업 원년' 선포식을 거행하는 등 도시농업의 이슈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조경계에서도 큰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경적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소재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유실수가 된다. 살펴보면, 유실수의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 감나무, 대추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 등의 유실수는 삭막한 도시환경에 향토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며, 색깔의 풍성한 열매가 열려 있는 모습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유실수의 열매는 사람은 물론이고 도시의 새가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새를 끌어들이는 식이식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감나무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루고 있는 유실수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가격표에는 감나무에 대해서 품종구분 없이 11개의 규격별로 단가가 매겨져 있다. 물론 규격을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시장유통가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수종 제시로는 최근 도시농업의 트렌드에 뒤쳐질 수밖에 없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경관조성에 제약이 있는 단순한 시공용 수종의 한 가지를 제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조경도서의 경우도 원종 중심의 설명이 주가 되어 있고 조경도서C만이 4개 품종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 원예종묘사의 경우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례로 국내 원예종묘사B를 보면, 단감[완전감시] 4개 품종과 일반감[불완전감시] 7개 품종으로 개량종을 포함한 총 11개 품종에 묘목 위주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 여기에는 감을 생산하는 전문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거래 품종과 가격을 명시한 것이 되겠지만, 모두 조경소재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산적 조경(productive landscape)의 잠재수종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한편, 해외 원예종묘회사A는 무려 감나무 49품종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바, 품종 개발 및 유통에 있어 더욱 전문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유실수 품종들의 조경적 가치를 조경계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품종은 생산을 권장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화목류의 품종 구분

화목류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목적으로 식재되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 특히나 주의를 요하는 소재이다. 차폐식재나 유도식재 등의 기능식재와는 달리 화목류는 요점식재, 강조식재 등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므로 기본적인 식물의 생리·생태에 대한 지식 외에도 디자인 이론에 대한 전문적 학습이 요구된다. 설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시각적 요소는

			
수고 90cm 70,000	수고 90cm 70,000	수고 90cm 70,000	수고 45cm 40,000
			
수고 45cm 40,000	수고 45cm 40,000	수고 45cm 40,000	수고 60cm 50,000
수고 60cm 50,000	수고 60cm 50,000	수고 60cm 50,000	수고 90cm 70,000

그림 1. 국내 원예종묘사 카탈로그에 수록된 스탠다드 타입 장미의 품종과 가격 예시

자료: 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 2012: 72

일반적으로 형태(form), 질감(texture), 색채(color)로 요약된다. 즉,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수형[수관], 생장형, 꽃의 색채에 따라 경관연출이 달라지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설계결과를 보면 많은 도면에서 식물의 형태, 질감, 색채의 요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디자인의 시각적 원리로 여겨지는 조화(harmony), 균형(balance), 대조(contrast), 대칭(symmetry), 강조(accent), 통일(unity) 등을 고려한 경관설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조달청과 조경수협회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애초에 기본적인 디자인 이론과는 상관없는 단조로운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발견된다. 일례로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장미를 살펴보자. 조달청 가격표에서는 장미와 덩굴장미 두 종에 대한 규격별 가격이 고시되어 있고,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장미로 통칭한 가격만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것도 정확한 규격 없이 3년생에서 5년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원예종묘사B의 경우 장미의 4개 타입에 대해 총 261품종이 거래되고 있으며, 타 사의 경우도 11개에서 36개의 품종이 타입별로 각각 수고가 명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그림 1 참조)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또한 해외 원예종묘사의 경우 5개 타입에 대해 최대 506품종에 대한 목록화가 이루어져 조경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선진 외국의 다품종의 화훼수요에 대한 반영으로 여겨진다.

이들 화목류, 특히 장미 한 가지만 해도 품종별로 꽃의 색깔과 생장형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조경소재로 적합한 품종은 학계와 업계의 검토를 거쳐 조경서적을 통해 가르치고 나아가 품종생산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초화류[지피식물]의 품종 구분

대표적인 의원기(意園記)로 자주 회자되는 정약용의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는 이상적인 정원의 조건으로 '최소한 국화 48가지 종류의 품종을 갖추어야 한다'고 소묘하고 있다. 사

표 2. 조경식물 품종 구분 현황

성상	식물명	학명	조달청	조경수 협회	조경도서			국내 원예종묘사					해외 원예종묘사			
					A	B	C	A	B	C	D	E	A	B	C	
유실수	감나무	<i>Diospyros kaki</i>	1	1	1	1	4	9	11	10	7	8	49	-	7	
	대추나무	<i>Zizyphus jujuba</i>	1	1	3	3	2	8	5	3	3	6	2	-	6	
	매화나무	<i>Prunus mume</i>	1	1	1	2	6	6	22	3	6	7	18	8	-	
	모과나무	<i>Chaenomeles sinensis</i>	1	1	1	1	2	2	4	1	3	5	-	-	5	
	복숭아나무	<i>Prunus persica</i>	-	-	1	3	9	2	16	5	9	7	31	72	14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1	1	1	2	3	2	7	6	4	4	6	20	7	
	석류나무	<i>Punica granatum</i>	1	1	3	3	3	4	8	3	3	3	6	21	8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1	1	3	2	2	2	2	1	1	2	-	-	1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	-	1	2	3	8	10	16	10	7	24	80	11	
	포도나무	<i>Vitis labrusca</i>	-	-	2	-	-	3	5	4	4	5	40	132	31	
화목류	꽃복숭아	<i>Prunus persica</i> for. <i>rubroplena</i>	1	1	-	-	9	1	-	4	-	-	-	11	7	
	꽃사과	<i>Malus prunifolia</i>	1	1	7	2	5	1	1	1	1	1	-	-	-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3	3	4	3	14	2	1	3	1	1	22	11	-	
	등나무	<i>Wisteria floribunda</i>	1	1	5	3	4	1	1	1	1	1	-	-	2	
	리일락	<i>Syringa oblata</i>	1	1	2	1	3	6	3	3	5	5	8	-	-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1	1	1	1	12	18	59	12	9	5	29	27	-	
	목련류	<i>Magnolia</i> spp.	2	2	7	9	23	7	3	5	4	3	19	-	16	
	무궁화	<i>Hibiscus syriacus</i>	2	2	5	1	12	1	4	1	15	12	9	-	-	
	벚나무류	<i>Prunus</i> spp.	3	3	4	9	7	6	70	8	5	3	30	39	-	
	배롱나무	<i>Lagerstroemia indica</i>	1	1	3	2	2	1	2	3	1	1	-	-	-	
	산딸나무	<i>Cornus kousa</i>	1	1	-	1	3	1	4	5	1	1	-	-	-	
	영산홍	<i>Rhododendron lateritium</i>	1	1	3	-	11	2	3	3	2	1	-	-	-	
	장미	<i>Rosa</i> spp.	H.T.	2	1	1	1	7	32	103	11	8	26	99	120	-
			Fl.					2		22		8		103		
			classic type					1		91		-		194		
Cl.			2					45		16		104				
Min.			1					-		4		6				
소계			2	1	1	1	13	32	261	11	36	26	506	120	-	
초본류	꽃양귀비	<i>Papaver nudicaule</i>	-	-	-	-	-	1	40	1	-	-	-	-	-	
	다알리아	<i>Dahlia pinnata</i>	-	-	-	-	-	-	80	4	-	-	-	-	-	
	백합	<i>Lilium longiflorum</i>	-	-	-	-	-	-	47	4	-	-	-	-	35	
	삼지구엽초	<i>Epimedium koreanum</i>	-	-	-	-	-	1	16	1	-	-	-	-	-	
	세덤	<i>Sedum</i> spp.	-	-	-	-	-	-	38	6	-	-	-	-	-	
	수련	<i>Nymphaea tetragona</i>	-	-	-	-	-	-	1	1	1	1	4	-	-	
	속근 플록스	<i>Phlox paniculata</i>	-	-	-	-	-	-	36	-	-	-	-	-	-	
	아스틸베	<i>Astilbe arendsii</i>	-	-	-	-	-	-	54	-	-	-	-	-	-	
	아이리스	<i>Iris nertschinskia</i>	-	-	-	-	-	-	269	4	-	-	6	43	-	
	연꽃	<i>Nelumbo nucifera</i>	-	-	-	-	-	-	1	2	2	2	-	-	-	
	옥잠화	<i>Hosta plantaginea</i>	-	-	-	1	-	1	18	4	1	1	-	-	-	
	원추리	<i>Hemerocallis fulva</i>	-	-	-	6	-	1	1	1	-	10	-	-	-	
	작약	<i>Paeonia lactiflora</i>	-	-	3	1	1	48	39	4	20	-	43	50	-	
	칸나	<i>Canna</i> spp.	-	-	-	-	-	-	10	3	-	-	-	-	-	
튤립	<i>Tulipa gesneriana</i>	-	-	-	-	-	-	24	8	-	-	-	499	6		

실 조선시대 문인은 식물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 못지않게 해박했으며, 국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에 대해 품종을 구분하여 명시했던 점은 현대 조경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실, 선진 해외의 경우 다양한 초화류가 조경소재로 개발되어 있으며 관상가치가 높은 초화류의 경우 수많은 품종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이용이 극히 미약하여, 제한된 종류가 지피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식물도감을 비롯한 조경서적에서도 수목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초화류는 아주 적은 내용이 할애되어 있다. 근래에 초화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안목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조경분야에서 이를 뒷받침 해줄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단적인 예로, 표 2에서 조달청, (사)한국 조경수협회뿐만 아니라 조경서적까지 초화류에 대한 기록이 드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오히려 조달청과 조경수협회의 가격표는 초화류의 설계와 활용이 조경의 전문분야임이 분명한데도 타분야의 영역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까지 남기고 있는데, 이는 조경분야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반면, 국내외의 원예종묘회사의 카탈로그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내 원예종묘회사B는 아이리스류의 품종 269종, 다알리아 80종, 작약 39종을 기재하고 있으며,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기후와 국민적으로 선호하는 식물 위주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달청·(사)한국 조경수협회의 가격표, 조경서적, 국내와 해외의 원예종묘회사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조경소재에 대한 품종분석 및 비교를 통해 조경소재선정을 다양화 시키고 식재설계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유실수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특성상 도시농업의 주요한 소재로의 잠재력이 크며, 향토경관 창출 및 생태적 조경의 소재 등 활용가치가 높다.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가격표의 분석결과 품종 구분 없이 규격별 가격이 매겨져 있었으나, 원예종묘회사는 우수한 조경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유실수에 대해 같은 종이라도 다양한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품종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는 생산적 조경(productive landscape)의 잠재수종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식재설계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은 화목류의 수형, 성장형, 꽃 색깔에 대한 특성이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회사에서 참조되는

수목 가격표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화목류의 품종별 소재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자료는 품종 구분 없이 수목에 따른 가격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의 한계는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단조롭고 부조화된 경관이 양산되는 문제점을 유발하는 바, 원예종묘회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목류의 품종 중 조경소재로 적합한 것은 학계와 업계의 검토를 거쳐 조달청 가격표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3. 관상가치가 높은 다양한 초화류의 품종이 조경소재로 이용되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조달청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가격표에는 극히 제한된 초화류가 다뤄지고 있고, 조경서적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식재설계가 단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조경분야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달청 가격표는 이용 가능성과 공간특성에 맞는 초화류의 품종을 다양화하고 표준적인 가격의 제시가 요구된다.

우리 조경에 있어서 식재설계가 가장 취약한 분야라는 판단은 이미 조경업계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심우경, 2009: 57).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로 설계회사에서 참조하는 수목가격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랫동안 바꾸어지지 않았던 조달청과 (사)한국 조경수협회의 비전문적인 수목 가격표를 개정하여 유용한 조경식물에 대해 품종별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조경 학계와 업계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 품종과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원예종묘회사의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다양한 품종의 소재들이 식재설계에 반영되고 동시에 조경업의 전문성, 전문영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주 1. 본 연구에서 선정된 초화류는 연꽃, 수련, 아이리스류의 수생, 수변식물을 포함해서 최근 옥상녹화에 자주 사용되는 세덤류와 국내에서 오랫동안 정원소재로 이용되어 왔던 옥잠화, 원추리, 다알리아, 작약 등이 망라되었다.

참고문헌

1. 가산원예조경(2012) 가산원예조경종묘안내. 서울: 가산원예조경.
2. 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2012) 뿌리깊은나무. 서울: 국제원예종묘주식회사.
3. 김성수(2009) 한국의 조경수목. 서울: 기문당.
4. 김용식 외(2007) 최신 조경식물학. 서울: 광일문화사.
5. 대립원예종묘(주)(2012) Nursery Guide. 과천: 대립원예종묘(주).
6. 서립원예종묘(2012) (주)서립원예종묘안내. 과천: (주)서립원예종묘.
7. 심우경(2009). 조경식재 교육 들여다 보기. 조경생태시공. 2009 봄(53): 56-61.
8. 한국조경학회(1988) 조경수목학. 서울: 문운당.
9. 한솔원예종묘(2012) Nursery Guide 2012. 과천: 한솔원예종묘.
10. <http://www.hanahiroba.com>
11. <http://www.kokkaen-ec.jp>
12. <http://www.tytyga.com>